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3월 28일

CUOMO 주지사, 주민들이 400여 개 장소의 세금 신고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장

뉴욕 주민, 4월 15일에 마감되는 세금 신고 무료 서비스를 환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국 국세청(IRS), 뉴욕주 기관, 주 전체의 지역 단체 등과 함께 중간 이하 소득의 납세자들이 4월 15일 마감되는 세금 신고를 준비하고 접수하도록 도와주는 무료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권장했습니다.

VITA(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 프로그램은 연간 소득이 $51,000 이하인 개인과 가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이러한 지원 사무소에서 IRS가 인증한 자원봉사의 도움으로 연방 및 주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올해에 3,5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뉴욕 주민의 세금 신고를 무료로 돕기 위해 시간과 전문 지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4월 15일 마감이 다가오는데 아직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들은 뉴욕주 400개 장소 중 한 곳을 방문하여 무료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무 및 재무국장인 Thomas H. Mattox씨는 "VITA 프로그램은 매년 세금 신고서 작성 및 접수 비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환급금도 매우 정확하다고 합니다." "수 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4월 15일 마감 이전에 납세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IRS의 이해관계자, 제휴,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Verlinda Paul씨는 "뉴욕주와 지방 비영리 기관과 합력한 결과 VITA 프로그램은 매년 성장하고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준 모든 파트너 및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작년에 뉴욕주의 VITA 자원봉사자는 거의 200,000건의 세금 환급을 도와주었고 서비스를 이용한 납세자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orean

Fairport의 납세자 Thomas Wildey씨는 “VITA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교육을 받은 전문가로부터 세금 신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원봉사자들은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 사무소도 교통이 편리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Empire State Plaza Concourse에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한 Troy의 Rosanne Tucker씨는 “올해 세금 신고를 직접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VITA는 처음 이용했는데 내년에도 꼭 이용할 계획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임시 장애 지원국의 부국장인 Kristin M. Proud씨는 “VITA 자원봉사자들은 가족들이 받아야 할 모든 주 및 연방 세금 환급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금의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제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IRS가 주 기관 및 지방의 비영리 단체와 제휴하여 후원하고 있는 VITA 프로그램은 뉴욕주 400여 개의 VITA 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United Way 부사장인 Mary A. Shaheen씨는 “United Way는 2-1-1 콜센터 및 지역사회 파트너와 협력하여 뉴욕주 전체의 150여 개 VITA 사무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지역에서 사용되는 환급금인 근로 소득 세금 환급에 대해 세무자들에게 교육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납세자와 사업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Food Bank For New York City의 사장 겸 CEO인 Margarette Purvis씨는 “2002년부터 뉴욕 주민을 위해 Free Tax Assistance Program을 후원해왔습니다.” “30만 건 이상의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고 저소득 주민이 세금 환급으로 5억 달러 이상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VITA 사무소는 지역사회와 가까운 센터, 도서관, 학교, 쇼핑몰, 기타 편리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방문하기 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소득이 $57.000 미만일 경우 가정에서 “Free File”

개인용 컴퓨터를 소유한 납세자로서 연간 소득이 $57,000 미만인 사람도 가정에서 세금 신고를 무료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Free File 소프트웨어는 간편하게 주 및 연방 환급 방법을 설명하며 사용자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시청하도록 도와줍니다.

뉴욕주 세금 환급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 받기위해, 세무부서는 납세자가 홈 페이지 www.tax.ny.gov에서 Free File에 접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세금환급

VITA 사무소와 Free File 프로그램은 주 및 연방 환급을 전자식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환급 대상자는 문서로 접수하는 것보다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접수는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세금 환급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상세 정보

- 가까운 VITA 사무소는 http://www.irs.gov/Individuals/Find-a-Location-for-Free-Tax-Prep를 방문하거나 IRS의 무료 전화번호 1-800-906-9887로 전화하여 문의하십시오

- 무료 접수(FreeFile) 및 소득세 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tax.ny.gov에서 확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